

## 강원영상위원회, '메이드인강원 단편영화 상영회' 개최

- 지난해 제작지원한 단편 영화 총 다섯 편 공개 상영회 열어
- 영화 상영 후 감독 5명 참석 '관객과의 대화', 선물 증정 특별 이벤트 예정
- 오는 3월 5일(화) 오후 6시 30분, 남춘천 메가박스 2관 선착순 입장

□ 강원영상위원회(위원장 방은진)는 따뜻한 봄을 맞아 오는 3월 5일(화) 남춘천 메가박스에서 도민 초청 '2018 메이드인 강원 - 단편영화 상영회' 를 개최한다.

□ 이번 행사는 작년 한 해 동안 강원도 출신의 영화인들을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해 강원영상위원회가 제작지원한 단편 영화를 발표하는 자리로, 영화를 좋아하는 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선착순 입장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. 또한 추첨을 통해 텀블러를 증정하는 현장 이벤트도 진행된다.

□ 상영작으로는 ▲〈대리〉 감독 김상호(춘천), ▲〈피톤치드〉 감독 김영진(강릉), ▲〈소담의 텅 빈 추억을 위하여〉 감독 박소진(춘천), ▲〈여름비〉 감독 김다나(동해), ▲〈그러려니〉 감독 원하라(원주) 총 5편이다. 영화 상영 후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갖는다.

□ 강원영상위원회 관계자는 “영화를 좋아하는 도민 분들과 함께 강원영화인의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.” 며 “앞으로도 도내에서 활동하는 지역 영화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형태를 다각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.” 이라 말했다.

□ 상영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([www.gwfilm.kr](http://www.gwfilm.kr)) 및 공식 페이스북(<https://www.facebook.com/gogwfilm/>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원영상위원회 기획사업팀  
김유경 대리(☎033)240-13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 2018 메이드 인 강원 단편영화 상영회

같이 보자!



2019. 3. 5. Tue PM 6:30  
남춘천 메가박스 2관



강원도 강원영상위원회  
GANGWON FILM COMMISSION



강원문화재단  
Gangwon Art & Culture Foundation

# 2018 메이드 인 강원 단편영화 상영회



## 대리

감독 김상호 극영화 24min color 2018

서울로 상경해 직장생활을 하던 승민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.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 불법 대리운전을 하던 승민은 고교동창 재영의 차를 운전하게 된다.



## 피톤치드

감독 김영진 극영화 20min color 2018

드론을 통한 촬영감독과 산골할머니의 만남.



## 소담의 텅 빈 추억을 위하여

감독 박소진 극영화 16min color 2018

예비 신부 소담(28)은 결혼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는다. 수면제를 먹고 억지로 잠에 들지만 뒤편 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잠을 설친다.



## 여름비

감독 김다나 극영화 20min color 2018

자원은 가야만 하는데, 바깥은 비가 쏟아진다. 우산이 없다. 텅 빈 학교에 남아있는 또 다른 아이 민주를 만난다.



## 그러려니

감독 원하라 극영화 34min color 2018

나의 아버지는 가출을 한지 3년이 지났고, 새 엄마 이화숙씨는 새로운 사랑이 생겼다. 나는 이제 둘의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.

강원영상위원회의 2018년 강원영상인발굴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다섯편의 단편영화를 상영합니다.  
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 
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
2019. 3. 5. Tue PM 6:30  
남춘천 메가박스 2관  
(춘천시 춘천로 17번길 17)



문의 강원영상위원회 기획사업팀 ☎ 033-240-1373